

5년간 블로그·트위터 글 분석...연말 어떤 단어 많이 썼나

‘외롭다’ 5배 늘고 ‘즐겁다’ 73% 줄어

〈3264회→1만7870회〉

〈5만2553회→1만4003회〉

올 크리스마스 선물은 팔찌·반지 선호

송년회 연관어 1위 술

10위 내 술 종류만 5개나

드레스코드 2위·고기 3위



‘따라따라’ 어느덧 구세군 냄비의 종소리가 울린다. 길가에 모습을 드러낸 군고구마 장수들이 연말을 실감케 한다. 그리고 곳곳에서 울리는 캐럴과 총장로를 가득 메운 인파가 ‘익숙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이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년에 비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소프트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16일까지 블로그(5억6682만32회)와 트위터(79억2637만4169회)의 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감성어 가운데 ‘외롭다’가 2011년 3264회에 비해 올해 1만7870회로 언급량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즐겁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성어는 5만2553회에서 1만4003회로 73%가 급감했다. ‘기다리다’(1만7029회→1만6548회), ‘행복하다’(2만4599회→1만6782회)도 언급량이 줄었는데, 그동안 SNS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폭은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누군가에겐 외로운 ‘크리스마스’지만 이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물이다.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선물은 ‘인형’(1만970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커피’(1만6516회), ‘장난감’(1만5375회)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연관 언급어로 처음 등장한 ‘팔찌’(3731회)와 ‘반지’(3585회)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또 천연재료인 콩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공해 만든 ‘소이캔들’(2645회)도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막바지 송년회 분위기도 한창이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은 단연 술이다.

다음소프트가 ‘송년회’를 주제로 6년간(2010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트위터(78억4만

9632건)와 블로그(7억3472만1138건)를 분석한 결과, 술은 송년회와 연관어로 3만4817회가 언급돼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맥주(8384회), 와인(8112회), 소주(5817회) 등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하면 술 종류만 10위권 중 5개나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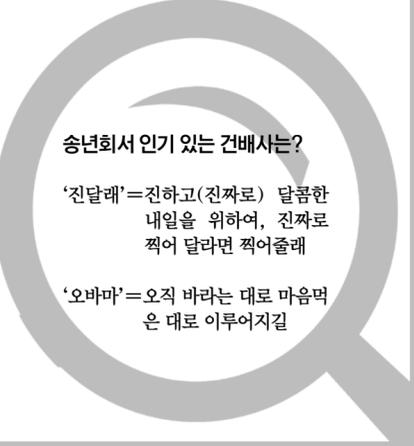
또 송년회의 대표적인 메뉴인 ‘고기’는 1만812회가 언급돼 3위를, ‘삼겹살’(6644회)은 6위를 기록했다. 2위는 3만736회가 언급된 ‘드레스코드’로, 송년회 자리에 어울릴만한 옷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송년회 술자리에서 자주 겪는 당혹스러운(?) 건배사의 연관어는 무엇이 있을까? ‘건배사’를 주제로 분석한 결과 연관어는 ▲진달래(1241회)와 ▲구호(1110회) ▲성공(977회) ▲행복(956회) ▲오바마(910회) 순으로 나타났다.

‘진달래’는 ‘진하고(진짜로)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또는 정치권에서는 ‘진짜로 찍어 달라면 찍어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는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길’의 줄임말이다.

송년회를 갖는 날은 두주불사(酒酒不辭) 이후에도 출근의 부담이 없는 토요일(5064회)과 금요일(4623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요일(3371회)과 일요일(2417회)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송년회에서 인기 있는 건배사는?

‘진달래’=진하고(진짜로)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진짜로 찍어 달라면 찍어줄래

‘오바마’=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길

광주과학관서 ‘1박2일 캠프’ 가능해진다

120명 숙박동 2017년 완공

호남지역 거점 과학관을 맡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건립에 들어간다.

23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숙박동’ 건립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관 본관 옆에 부지(1885㎡)에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에 착수한다.

이 숙박시설에는 그동안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식당 등 부대시설도 포함됐으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총 5개의 국립과학관 중 속

박시설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거점 과학관 역할을 하면서도, 도내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힘들었다.

전남지역 학생들은 첨단에 위치한 광주과학관을 방문해도 이동시간 탓에 관람시간이 부족한데다, 별자리 관측 등 1박2일간 과학캠프 운영도 불가능했다.

강신영 관장은 “그동안 도내지역 학생들이 과학관을 방문해도 제대로 체험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며 “숙박이 가능할 경우 다양한 과학체험이 가능하고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보건환경연, 매주 수요일 과학체험교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방학에 들어간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과학체험교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전남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로 매월 20명 내외로 신청을 받는다.

참가 학생들은 과자와 햄 속에 들어간 식품첨가물과 올바른 섭취방법, 손을 씻

기 전과 후 직접 세균을 측정함과 동시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만능지시약을 이용한 무지개 탐 만들기, 기와 소리 측정과 소음 저감법, 휴탕물 깨끗하게 만들기,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jihe.go.kr)나 전화(061-240-5250, 5257)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MIG(Made In Gwangju) APP

나도 모르는 내 성격 “별들에게 물어봐”

센스아이 ‘년 어느별에서 왔니?’



‘센스아이(대표 고현아)가 개발한 ‘년 어느별에서 왔니?’는 인간의 성향을 8가지 행성으로 분류해, 사람의 행동패턴을 나누는 성격유형 진단검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패턴을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 등 8개 행성에 빛대는 ‘행성심리학’을 적용했다.

우선 63개 문항의 검사항목 중 주요항목(16개)만 뽑아 간소화시켰으며,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했다.

설문 형태의 검사를 통해 개인의 성향에 맞는 행성을 알려준다. 또 친구나 가족 등 지인의 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달한 뒤 상대방이 검사를 완료하면 ‘친구별’ 상대의 성향이 나타난다.

결과를 통해 지인의 성향과 나의 성향을 비교해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을 알 수 있으며, ‘가까워 지려면’, ‘이렇게 다가 가세요’ 등 관계개선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센스아이’는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 앱을 개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2016년도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